



해외 리포트

충남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도시 ‘웨이하이’

강현수 _충남연구원장

충남연구원은 2014년 9월 웨이하이시 정책연구실 초청으로 웨이하이시를 방문하여
충청남도과 웨이하이시 사이의 상호교류 및 정책연구 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 글은 충남연구원 방문단의 당시 방문 일정과 장소에 따라 웨이하이시를
간략히 소개하는 기행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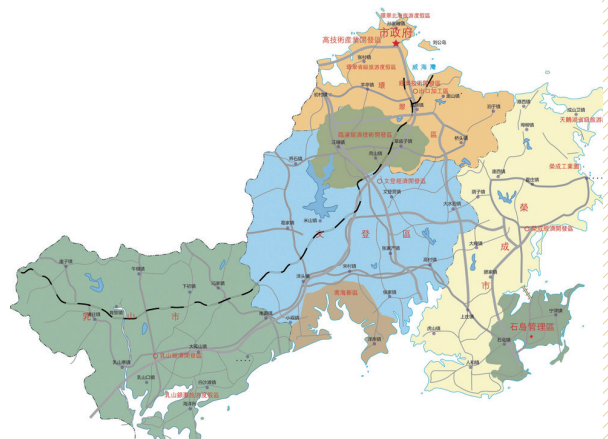
■ 웨이하이 개관

웨이하이(威海:위해)는 중국 산둥(山東)반도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도시이다. 황해 쪽으로 길게 튀어 나온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 보면 변방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대외 교류와 군사적 요충지였고 우리나라와 많은 왕래가 있던 지역이다. 명나라 때 왜구를 막기 위해 군대가 주둔하면서 바다를 지키는 의미의 '위해(威海)'라는 이 곳 지명이 유래되었다.

웨이하이시 행정구역 총면적은 5,797km², 현재 상주인구는 약 280여만 명으로 충청남도 (2014년 말 현재 면적 8,204km², 인구 206만) 보다 크기는 조금 작고 인구는 조금 더 많다. 웨이하이시 산하에 환추이구(環翠區), 원당구(文登區), 룡청시(榮成市), 루산시(乳山市)가 속해 있다.



웨이하이시 위치도 (출처: www.visitweihai.kr)



웨이하이시 행정구역 (출처: www.investweihai.gov.cn)

웨이하이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깨끗한 공기,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제적 성공과 개방적 문화로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빠르게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이 적고, 온천과 해수욕장,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도 많다. 이를 입증하듯 중국의 첫 번째 '국가위생도시', '국가환경보호호범도시', '중국우수관광도시', '국가정원도시', 유엔의 '세계 주거환경개선 최적모범도시' 등에 지정된 바 있다.

신라시대 장보고 장군이 신라방을 세웠던 곳이기도 한 웨이하이에 지금 많은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진출해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웨이하이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 항해를 내려다보는 웨이하이 환하이 해변길

2014년 9월 25일 충남연구원 방문단은 옌타이(烟台)대학과 학술교류 행사를 마치고 버스로 웨이하이에 도착하였다. 원래 웨이하이시는 옌타이시에 속한 현급(縣級) 도시였지만, 1987년 옌타이시에서 분리되어 지금(地級) 도시로 승격하였다.¹⁾ 웨이하이시 정책연구실에서 마중 나온 분들과 시내 중심가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웨이하이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았다.

이튿날 아침 웨이하이시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해변도로 환하이루(環海路:환해로)를 구경하였다. 웨이하이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으로 역내 해안선 길이만 1,000여 km²에 달해 산둥성 전체 해안선의 3분의 1, 중국 전체 해안선의 18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갯벌이 발달한 우리나라 서해와는 달리 웨이하이에서 본 중국의 항해는 우리나라 동해와 비슷한 수심이 깊고 청정한 바다였다. 바다 곳곳에 크고 작은 양식장들이 많이 보였다. 안내인의 설명에 따르면 웨이하이는 전통적으로 어업 중심지이며 해산물 가공유통산업이 발달해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곳 웨이하이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해산물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급증하는 해산물 수요에 부응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춘 웨이하이 앞바다에 양식업이 발달하여 미역과 해삼을 위시한 많은 양식 해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바다 오염이 심해지면서 중국의 양식 업체들이 깨끗한 바다 양식장을 찾아 한국에 진출하길 원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

해변도로를 따라 가다보니 해수욕장이 있거나 해변 경관이 좋은 자리 곳곳에 리조트나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있었다. 웨이하이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양 여가관광지로 최근 중국 부유층을 위한 별장들도 많이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 웨이하이시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도시계획관

우리 일행은 웨이하이 시내로 들어와 웨이하이시 도시계획관을 방문하였다. 작은 어촌에서 지금과 같은 현대 도시로 성장한 웨이하이의 도시 역사와 함께 미래의 도시발전 구상을 보여주는 도시계획관은 규모도 대단했고 전시 내용도 훌륭했다. 덕분에 짧은 시간 동안 웨이하이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과거 제(齊)나라 영토에 속했던 중국의 동쪽 끝 웨이하이는 일찍부터 어업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진시황과 한 무제가 중국의 땅끝이었던 이곳까지 순행했던 유적이 남아있다. 청나라 말기 중국 최초 해군 기지가 웨이하이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 류궁다오(劉公島:유궁도)에 자리잡았던 이유도,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이곳 해군 기지를 제일 먼저 공격했던 이유도 이곳의 군사전략적 가치 때문이었다. 청일전쟁 패배 후 웨이하이는 홍콩과 함께 영국에 조차되어 40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시기 연해개방도시와 개혁개방전형도시로 지정되어 대외 개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많

1)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에서 도시는 그 크기에 따라 성급(省級), 지급(地級), 현급(縣級) 도시로 계층화되어 있다. 성 정부 산하에 지급 도시가, 지급 도시 산하에 현급 도시가 있다.



은 외국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하였고 도시도 급격히 성장하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의 교류 관계 확대가 웨이하이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한중 수교 이전부터 웨이하이와 한국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취항하여 한중 보따리 무역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조선, 전자, 기계, 의류,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대중소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하였다. 조선업에 진출한 삼성중공업과 삼진조선을 비롯하여, 프린트 공장을 지은 삼성전자, 풍력터빈공장을 지은 현대중공업,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투자한 롯데그룹, 골프리조트를 지은 금호아시아나, 금융업에 진출한 우리은행 등이 이곳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이다.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옮기거나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1,000 여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과 3만 여명의 교민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이 웨이하이 전체 대외 수출입의 약 30 %를 차지한다.

2011년 중국 중앙정부는 산둥반도 남색경제구(藍色經濟區) 발전계획을 국가 차원의 전략 정책으로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웨이하이시는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의 중점도시로서 첨단해양산업집결구,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 해변생태휴양관광구가 조성된다. 이 같은 국가 전략에 발맞춰 웨이하이시는 수산, 항만물류, 조선, 관광을 포괄하는 해양산업과 첨단 전자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6대기지, 10대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웨이하이 코리아타운 한러팡

도시계획관을 본 후 근처에 있는 한국 상품 전문 전시거래 장소이자 일종의 코리아타운인 한러팡(韓樂坊:한락방)을 둘러보았다. 웨이하이에는 한국 상품만 따로 모아 전시하는 곳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곳 한러팡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음식점을 비롯하여 의류, 화장품, 잡화 등 한국 상품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집단 입주해 있었다. 웨이하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여수시가 두 도시 사이의 우호관계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여수문'도 자리잡고 있었다.

한중 수교 이후 웨이하이시 정부는 웨이하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한국과 교류 확대에 있다고 보고, 매우 적극적인 한국 기업 투자 유치 정책과 함께 한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사업을 펼쳐왔다. 웨이하이 시내 곳곳에 한국어 안내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웨이하이시 공



웨이하이 코리아타운 한러팡 입구

무원 중 상당수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바 있으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공무원도 꽤 있다. 한국 지방정부 몇 곳도 이곳에 직원을 장기 파견하고 있었다.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훨씬 전부터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다져왔다. 한중 FTA에서 웨이하이시와 인천시가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도 이러한 준비의 결실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웨이하이시를 비롯한 중국의 지방정부들까지 한국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우리는 이 넓은 중국을 너무 모를뿐더러 알려는 노력도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웨이하이시 정책연구실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시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충남연구원 방문단은 웨이하이시 정책연구실 우융강(吳永剛) 주임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양 지역과 기관의 상호 교류와 정책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서로 자신들의 관심 분야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그리 길지 않은 공식 회의였지만 여기서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협력 사업을 앞으로 본격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 한중 FTA 체결 이후 양 지역 간의 통상 강화 방안. 특히 한중 자유무역구역 조성과 관련된 협력
-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 해양산업의 상호 협력. 특히 해삼, 전복 등 해양양식 분야 협력
- 양 지역의 도시개발 및 관리 정책, 환경보전 정책 경험 및 성공 사례 공유
-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계획과 충청남도 서해안 비전에 대한 상호 학습 및 성공 사례 공유



충남연구원과 웨이하이시 정책연구실 교류협력회의



■ 청일 전쟁의 격전지 류궁다오

공식 회의와 이어진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충남연구원 일행은 류궁다오(刘公岛)를 방문했다. 웨이하이 시내 선착장에서 배로 20 여분 거리에 있는 이 섬은 현재는 국가 5성급(AAAAA)급 관광지로 '해상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19세기 말 청나라가 건설한 중국 최초의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며 청일전쟁 때 일본의 침입을 받아 점령당했던 패전의 장소이다. 또 이후 40 여년 동안 영국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중국 정부는 이곳에 갑오전쟁(청일전쟁의 중국식 명칭) 기념관을 지어 패전의 기록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 기념관에는 청일전쟁 당시 한-중-일 3국의 상황과 서구 열강이 각축하는 동북아 정세와 함께, 전쟁 촉발의 배경이 되었던 우리나라 동학 혁명에 대한 사료도 전시되어 있었다. 이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치욕과 수모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훗날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중국인들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류궁다오 갑오전쟁박물관

■ 호서대학교 웨이하이 창업보육센터

웨이하이 시내에서 류궁다오를 오가는 여객선 선착장 바로 옆에는 웨이하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상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공원 안에 쑹푸먼(幸福門:행복문)이 우뚝 서 있다. 이 행복문은 웨이하이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다. 깨끗하게 정돈된 해상공원과 주변 시가지를 잠시 걸으면서 구경한 후,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입지한 호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창업보육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으로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충남 소재 호서대학교는 일찍이 2002년 웨이하이에 창업보육센터를 개소

하였다. 공장동 3개와 사무동 1개로 구성된 연면적 6천여평, 보육공간 3천여평 규모의 이 센터는 호서대학교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청, 웨이하이 시정부가 함께 산관학 협력 사업으로 만든것인데 중국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 창업보육센터라고 한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설립부터 자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 진출 성공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현재 14개 한국 기업이 보육되고 있고 이미 여기를 졸업한 기업도 4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웨이하이시 랜드마크 행복문

웨이하이 시내 롯데백화점 인근에 입점한 한국음식점 벽제봉피양에서 웨이하이시 정책연구원, 호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관계자 분들과 함께 한국 소주와 중국 백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웨이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 대산항과 교류를 앞둔 룡안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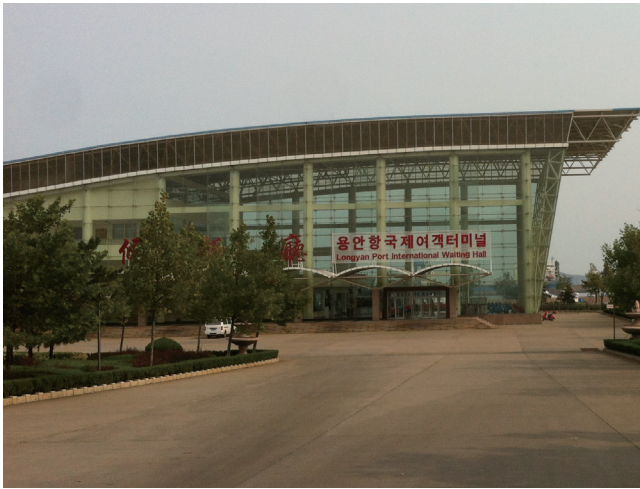
다음날 우리 일행은 충남 서산시 대산항과 연결되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는 룡안(龍眼:용안)항을 방문하기 위하여 웨이하이시 동쪽에 위치한 룡청시로 이동하였다. 룡안항으로 가는 길에 중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자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는 청산터우(成山头)가 있다. 이곳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다로 93해리(약 172Km)를 가면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국가 4성급(AAAA급) 관광지 청산터우를 아쉽게도 들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

웨이하이시에는 현재 세 곳의 국제항 -웨이하이항, 스타오(石島:석도)항, 룡안항- 이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인천, 평택, 군산항을 연결하는 정기화물선 및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룡청시에 있는 스타오항이 어업과 무역 중심항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항구라면 같은 룡청시에 있는 룡안항은 지금 한참 항구와 배후지역 확장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우리 일행이 들러본 룡안항에는 이미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대산항과 항로만 개설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룡안항에 이어 스타오항을 둘러보았다. 우리나라 영해까지 진출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선 상당수의 출항지가 바로 이곳 스타오항이다. 중국의 연근해 바다가 오염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곳 어민들도 생존을 위해 위



힘을 무릅쓰고 멀리 한국의 바다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스다오항에는 인천과 군산과 오가는 정기여객선 항로가 있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스다오항 인근에는 한국 음식점들과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꽤 눈에 띄었다. 조선족 주인이 운영하는 한국음식점 남한성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장보고 장군의 유적지 적산법화원으로 향했다.



대산항과 여객선 취항을 앞둔 룡안항 국제여객터미널



한참 확장 공사 중인 룡안항

장보고 장군의 유적지 적산법화원



장보고 기념비 앞에 선 충남연구원 방문단

스다오항의 배후에는 꽤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바위들이 붉은 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곳 지명이 적산(赤山)이다. 9세기 초 신라인으로 당나라의 장군이었던 장보고는 당시 이곳 적산포에 신라인들을 위한 불교사찰 법화원을 건립하였다. 당나라에 있던 신라인의 집단거주지를 신라방, 신라인들이 세운 사찰을 신라원이라 칭하는데, 이곳 적산포가 바로 대표적인 신라방이 있던 곳이고 법화원이 신라원이다.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오가는 해상



적산법화원에서 내려다본 스타오항 일대

무역을 주도하던 장보고가 여기에 법화원을 세운 이유는 당시 이곳이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이었어서 신라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국가 4성급(AAAA급) 관광지가 된 적산법화원에는 장보고 동상과 기념비, 기념탑, 전기관(傳記館)이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찾고 있다.

■ 충남연구원의 과제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충청남도에 버금가는 면적의 웨이하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주마간산(走馬看山) 본 것이지만,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굴기(崛起)를 이곳 웨이하이에서 직접 눈으로 체험한 것 같다. 우리 일행이 웨이하이에서 이동했던 경로 주변 곳곳에서 새로 건설 중인 엄청난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관광리조트단지, 도



로, 철도, 항만 공사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웨이하이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공사판과 같았다. 칭다오-옌타이-웨이하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공사는 이미 거의 끝나 개통을 앞둔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고 통상 교류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 무역이 주로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인 이곳 웨이하이의 입지적 강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충청남도가 웨이하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충청남도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도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웨이하이의 잠재적 역량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우리 일행이 둘러본 웨이하이는 한국과 가깝다는 입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그 노력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중국과 가까이 있다는 입지적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경제 흐름과 중국의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충청남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 해야 할 연구 과제도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웨이하이시 발간, 『웨이하이 투자안내서』 (한국어판)
- 웨이하이시 발간, 『중국 위해』 (한국어판)
- 충남연구원, 산동성 연태시 위해시 해외출장보고서 2014. 9.
- 호서대학교, 위해 창업보육센터 홍보물
- <http://www.visitweihai.kr> (웨이하이시 관광정보 한글 홈페이지)
- <http://www.weihai.gov.cn> (웨이하이시 홈페이지)
- <http://www.weihai.or.kr> (웨이하이 한국주재 관광청 홈페이지)
- <http://www.investweihai.gov.cn> (웨이하이시 국제투자촉진센터 홈페이지)